

행복한 금요 편지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이종천
세계경영연구소장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주 많이, 무척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다. 첫째는 고등학생이고, 다섯째는 유치원생이므로, 일단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이야기를 하겠다. 아직 유치원생인 5번째 손자는 후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편지를 읽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고 더 문화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 지금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지금보다 퇴보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반드시 더 발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릴 때인 20세기 중반에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웠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겨우 독립한 나라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기습적으로 침입하여 일으킨 6.25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모두들 참으로 가난하였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는 것은 물론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과 판잣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있었다. 너희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손자들,

1960년대, 온 국민이 꺾기하였다. 한번 잘 살아보자고, 우리는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고.

나도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단 1불이라도 더 수출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종합무역상사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열심히 일하였다. 일본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한창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오기로 그들과 경쟁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의 우리는 나라의 경제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필사의 노력을 하였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다. 매년 5000억불 규모를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특허등록 건수에서 나타나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20세기 중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위협을 느끼던 수준이 아니다. 비록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국군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전투력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반세기 전 “엽전은 별 수 없다”던 자조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인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다. “약속시간에 언제나 늦다”는 의미의 코리안 타임은 이제는 정확한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랑하는 손자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난 반세기 발전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여 너희들이 더욱 풍요롭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수준이 높은 문화국가에서 살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일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수출경쟁력이 일본과 비슷해야하고, 노벨 과학상의 수상자도 여러 사람이 나와야 한다. 주변의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못하는 수준의 국방력을 보유해야한다. 또 일반 국민 모두가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 바르며 친절하여, 세계인들이 우리의 문화와 의식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처음부터 수준 높은 나라가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5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일본인들이 합심하여 명치유신이라는 이름의 운동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당시 역사에 남은 지도자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름 없는 지사들의 기여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00년 늦게 20세기 중반에 민족중흥의 운동을 하여 모두들 노력함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사랑하는 손자들,

최근 나라의 발전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고 사회 일각에서 우선 나누어 먹자는 분배의식이 나타나고 일부 물지각한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는듯하여 우려스럽다.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런 노력을 응원하고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발을 걸고 훼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방해세력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발전해야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대명제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하기 바란다. 또 너희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업에 더욱 충실하여야할 것이다. 아울러 너희들이 활동할 때에는 지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그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준비하기 바란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